



ESCO의 CDM사업 참여 지원방안 강구

■ 김인숙 기자(kls@energycenter.co.kr)



울산화학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이 지난 7월 1일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승인됐다. 특히 이번 열분해사업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의 오대균 팀장을 만나 국내외 CDM사업의 현황과 전망, ESCO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국내 CDM사업의 추진현황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CDM사업 성격상 정확히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울산화학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이 교토의정서상의 CDM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승인되었고, 경남 울주군에 위치한 한국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에서도 아산화질소(N_2O)의 배출저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국내 최초의 CDM사업이자 세계 최초로 베이스라인 승인을 받은 울산화학의 열분해사업은 연간 1.4백만 CO_2 환산톤의 감축효과와 연간 80억원 이상의 배출권 판매수익이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 감축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외자유치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나일론, 폴리우레탄 등의 기초원료인 아디핀산을 생산하는 한국 로디아 폴리아마이드는 6대 온실가스중 하나인 아산화질소(N_2O)가 부산물로 생산돼 대기중에 방출되고 있어 이를 열분해를 통해 완전분해하여 배출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6월 25일 집행위원회에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

Interview

“

ESCO가 CDM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투자자를 확보하는 기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CDM사업의 준비과정에 관한 커리큘럼과 참여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

법론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르면 연간 N₂O 감축량이 10.5백만 CO₂화산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해외 주요국가들의 CDM시장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포인트카본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거래된 93백만 CO₂화산톤 중에서 CDM이 70백만톤을 차지했으며, 올해 전망은 94백만톤 가운데 51.5백만톤이 CDM을 통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JI(공동이행제도), CDM의 크레딧 시장(Credit Market)에서 주요 구매자는 일본기업, World Bank Carbon Fund, 네덜란드정부 순이며, 이들 3개 그룹이 2003~2004년 수요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41%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높은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고, 23%의 구매율을 보인 네덜란드는 정부에서 직접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CDM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온실가스시장의 최대 투자국이 될 미국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고, 2005년 1월 개장예정인 EU 배출권시장과 각 나라별 감축 할당량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ESCO사업과 CDM사업의 연계 가능성은

성과배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로 인한 절감액을 투자자와 절약업자간에 상호배분하여 저감량을 인정하는 ESCO사업방식은 CDM사업과 유사하며, 향후 ESCO가 온실가스저감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 ESCO사업이 에너지 절감액만을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반면, CDM사업은 에너지절감액과 온실가스 저감량 판매액을 고려하기 때문에 에너지절감액만으로는 경제성이 없었던 ESCO사업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내 ESCO가 국제 온실가스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ESCO의 CDM사업 참여를 돋기 위한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CO가 CDM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투자자를 확보하는 기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CDM사업의 준비과정에 관한 커리큘럼과 참여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Q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제한에 대한 의무부담압력이 표면화되고 있지만 아직 산업계에선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지난 94년 우루과이아운드에 따른 쌀개방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질서에 의해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주관하에 산업계 스스로 '자주행동계획'을 세워 상당한 자료 조사와 분석은 물론 매우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종별대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반면 기타 업종은 아직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서 석유수입량 세계 4위,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체계적인 감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